

속초소방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심폐소생술(CPR)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5개교 8개팀이 참가, 학생 2인이 한 조가 되어 그동안 갖고 닦은 심폐소생술 기술을 겨뤘다.

속초소방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속초소방서는 이에 앞서 정효남 속초해양교육장과 김경로 고성교육장, 육군 2사단 의무대장 안두석 중령 등 3명을 CPR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여협 김장 담가주기 봉사활동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4일 '이웃사랑 따뜻한 마음'이란 주제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가 전달해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12개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이 참가해 정성껏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등 200여 가구에 전달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연안 어선 조난사고 잇달아

속초해경 엔진고장 표류 어선 3척 구조...출항전 점검 당부

최근 영동북부 연안에서 어선들의 조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조업 어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흥희)는 최근 9일 사이 엔진계통 고장으로 표류하던 3척의 어선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과 민간자율구조선 등이 구조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양양군 하조대 등대 앞 1km 해상에서 엔진 냉각계통 손상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능한 기사문선적 통발어선 D호(5.27t, 승선

원 2명)를 민간자율구조선이 구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새벽 12시 15분경 고성군 공현진 동방 40km 해상에서 조업중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표류하던 속초시 동명선적 통발어선 M호(34t, 승선원 11명)를 어업지도선이 구조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등대 동방 1km 해상에서 조업중 엔진 냉각용 처수쿨라 폭발로 표류하던 기사문선적 정치망어선 D호(16t, 승선원 4명)를 민간자율구조선이 구조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3건의 조난선박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출어선을 대상으로 출항전 장비 점검 및 안전운항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연 기자

'베트남참전 노병들의 외침' 고성 40명 참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강원도지부 영동권 회원 20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강릉보훈지청 앞에서 '베트남참전 노병들의 외침'이란 집회를 개최하고, 보훈처장은 공법단체 승격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날 집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연령 제한 철폐 △4개 질병 즉각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 △국가유공자증에 '참전고엽제'라는 표기를 '참전국가유공자'로 올바르게 표기 △참전용사 미망인도 보훈 대상자로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성지역에서도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강원도지부 영동권 회원 20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강릉보훈지청 앞에서 '베트남참전 노병들의 외침'이란 집회를 개최했다.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강릉보훈지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상급 기관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

고 집회를 해산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사랑의 밥'으로 장병 전투력 쑥쑥

22사단 북진부대에서 12년째 민간 조리원 근무 김연숙씨

육군 22사단 예하 부대 가운데 속칭 '짬밥'이 제일 맛있는 부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북진부대 병사들은 주저 없이 '우리 부대'라고 말한다.

부대원들이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12년째 북진부대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연숙씨(47세, 사진)가 있기 때문이다.

북진부대 병사들 사이에서 '이모님'으로 통하는 김씨는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고 취사병들의 조리를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 맛은 손맛'이라고 하

듯이, 부대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음식에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김씨는 특히 병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면 "중대장님, 아무개 일병이 휴가를 다녀온 후로 밥도 적게 먹고 말수도 적어진 것 같은데요. 면담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건의하곤 한다.

김씨의 말을 듣고 상담한 결과 실제로 그 병사는 여자친구와 헤어졌거나, 집안에 걱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여러 번이다.

이는 그만큼 병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 남거나 선호하는 식재료를 이용해 추가메뉴를 만들어 제공하고,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는 특별히 미역국과 계란후라이도 만들어 준다.

얼마 전에는 전방 관측소 등을 둘러보는 전사적지 답사 기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3일 내내 새벽 4시에 출근해 김밥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다. 최근 100Km 행군이 있었던 날에도 김씨는 어김없이 저녁 늦게까지



육군 22사단 북진부대에서 민간조리원으로 일하는 김연숙씨가 '사랑의 밥'으로 전투력을 키워주고 있다.

남아 장병들의 야식을 책임졌다. 이와 함께 군단에서 매월 개최하는 지구급식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김씨가 추천한 '시금치두부무침'이 군단 표준 메뉴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연숙씨는 "자식 같은 병사들

이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 동안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북진부대 장병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더욱 힘을 내서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